

가족이랄땐 언제고…휴가철 동물판 고려장

광주 최근 3년간 유기동물 32% 6~8월에 버려져

휴가기간 관리 안돼 유기…여름마다 보호센터 포화

광주지역에서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반려동물 유기와 유실로 생겨나는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떠나기 전 반려동물을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버리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광주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모

두 7542마리로 이 가운데 2431마리(32.2%)가 6~8월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월별 평균으로는 6월 288마리, 7월 283마리, 8월 239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년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5월(298마리)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유기동물 발생이 가장 적은 1~3월에는 평균 124~141마리가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6~8월과 1~3월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휴가를 떠나기 전이나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반려동물 유기 또는 유실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휴가철에 집을 떠나있는 동안 먹이 등을 관리할 수 없고, 마땅히 맡길만한 곳을 찾지못해 반려동물을 유기하기 때문이다. 실제 휴가를 떠나면서 도로변에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거나 휴가지에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무책임과 무분별 공급 현상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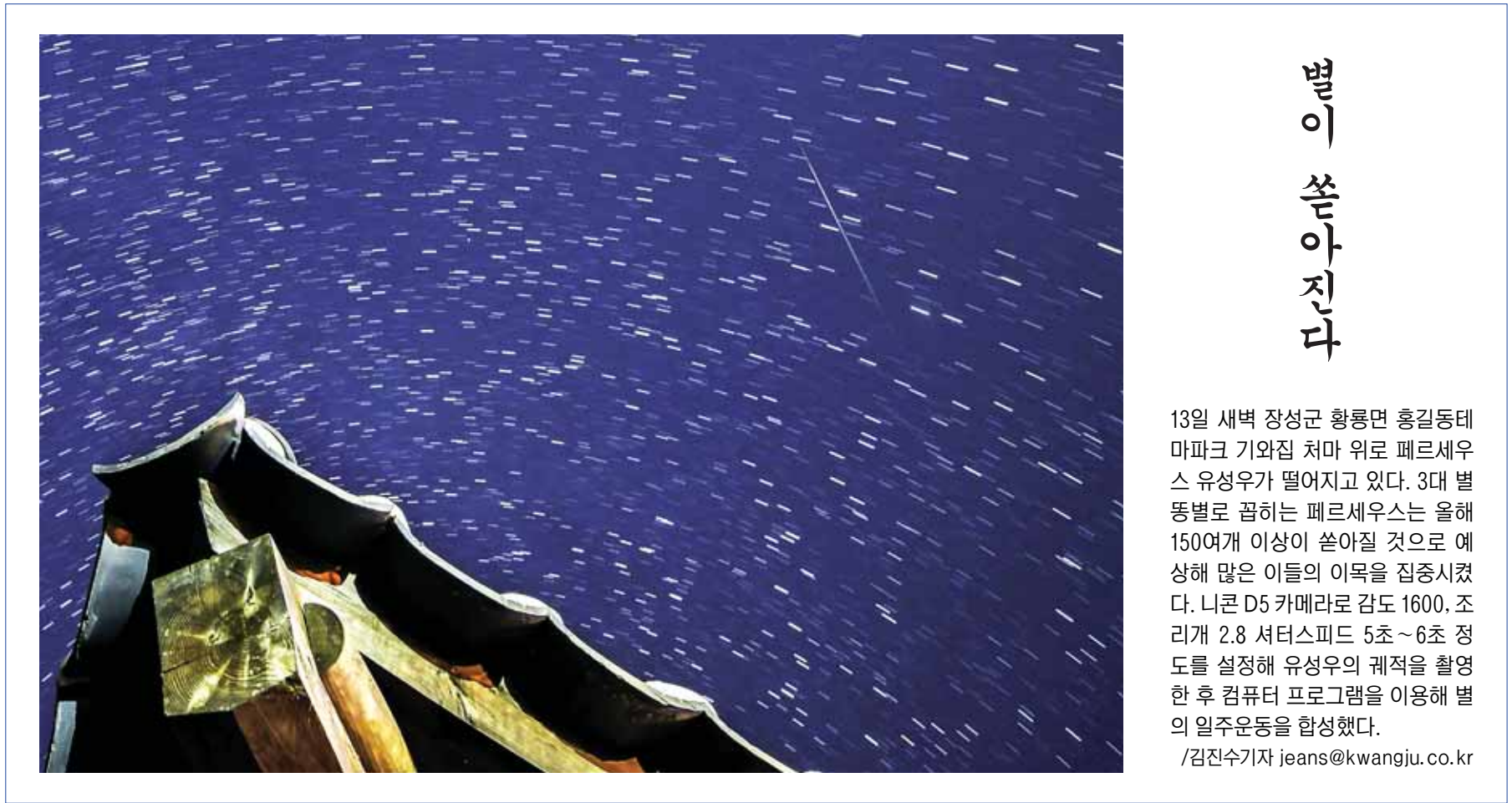
광주동물보호소 김용균 소장은 “여름에는 반려동물에서 나는 냄새와 날리는 털로 관리가 어렵고, 휴가를 떠나있는 동안 돌볼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버리는 경

우가 많다”며 “어름이면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결국 버려진 동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감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나서 단속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등록제도 마이크로 칩을 의무적으로 동물의 몸에 심는 방법으로 바뀌나가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2013년 2713마리, 2014년 2711마리, 2015년 2118마리로 매년 2000마리가 넘는다. 올해는 7월까지의 130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김경민기자 kki@



별이 쏟아진다

13일 새벽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에 마파크 기와집 처마 위로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떨어지고 있다. 3대 별동별로 꼽히는 페르세우스는 올해 150여개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니콘 D5 카메라로 감도 1600, 조리개 2.8 셔터스피드 5초~6초 정도를 설정해 유성우의 궤적을 촬영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별의 일주운동을 합성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년 참작” vs “감형 안돼”

재판 도중 성인 된 소년범 엇갈린 양형 기준

범행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재판받는 과정에서 형사법상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감금된 10대 미성년 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소년범임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됐다면 범행당시 나이를 이유로 감형을 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계 등 간음, 감금, 공동폭행, 공동공

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18)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C양과 D양은 2014년 4월25일 광주시 광산구 한 모텔에 당시 13세인 후배 E양을 유인, 감금하고 폭행해 2차레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가

로한 혐의다. D양의 친구인 A씨와 B씨는 감금된 E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3세의 피해자를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저지른 지 1년 이상 소년(당시 16~18세)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도중에 성인이 된 소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

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6개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씨에게 2심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범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3
해질녘 19:20

달출몰 17:40
달지름 23:27

시원한 소나기

구름이 많고 일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5/34	보성	구름많음	24/34
목포	구름많음	26/33	순천	구름많음	26/34
여수	구름많음	27/32	영광	구름많음	25/33
나주	구름많음	24/34	진도	구름많음	24/31
완도	구름많음	25/33	전주	구름많음	25/34
구례	구름많음	24/34	군산	구름많음	24/32
강진	구름많음	24/33	남원	구름많음	23/33
해남	구름많음	24/33	흑산도	구름많음	25/30
장성	구름많음	24/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북서~북	북~북동
남부	북서~북	북~북동
남해	서~북서	북동~동
서부	남서~서	북서~북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32	06:14
	12:26	18:04
여수	07:29	01:46
	20:17	13:30

◇주간 날씨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5/33	24/33	23/33	23/32	23/32	23/32	23/31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폭염, 주말부터 누그러진다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불볕더위가 이번 주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차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여수(군단) 36.5도, 보성(별교) 36.3도, 광양 35.5도, 구례 34.8도, 순천·여수 34.4도, 보성 33.9도, 나주 33.8도, 고흥 33.3도, 화순 33.2도, 광주 32.6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는 영광·장성·무안·목포·신안·서해안 섬 지역 일부(폭염주의보)를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4일부터 12일째 발효 중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에는 광양시 광양읍 한 마을회관 뒤편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김모(73)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4일 낮에는 목포시 원산동에서 야외활동을 하던 60대가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연열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20일부터 폭염이 주춤하면서 낮 기온이 31~32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말벌 주의보’…벌집 신고 하루 155건

폭염으로 생육환경이 좋아진 말벌이 대거 출현, ‘말벌 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에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에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벌집을 제거했다. 이날 하루동안 전남지역에서만 이 같은 벌집 제거 신고가 무려 126건 접수됐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2334건으로 하루 평균 155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1시7분께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인근 밭에서 A(87)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에서 말벌집 있는 곳부터 A씨가 쓰러진 곳까지 급하게 뛰어온 듯한 발자국이 발견됐다”며 A씨가 말벌의 습격을 피하다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말벌의 기승은 지구온난화와 천적인 조류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온 상승으로 말벌 생육환경이 좋아지고 활동도 활발해져 벌집 제거 신고가 하루 150건에 달한다”며 “선불리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참가업체 일부 소개 !!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 8.19(금)~21(일)

★ 참관 POINT 3가지! ★

1. 2016 창업트렌드 파악

2. 1:1 무료가맹상담

3. 무료 창업 교육 강연

주최 KFA 社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 전남지회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주관 제일중앙신문

문의 02)856-1402

1대 2인 무료입장권